

均如聖師著述에對하야

文 珠 善

總 論

均如聖師는 高麗 太祖 天授六年 (西紀 九二三) 八月 八日 에 黃海道 黃州 北 荆岳 南麓 에 서 誕生 하야 第四代 光宗 二十四年 (西紀 九七三) 六月 十七日 에 開城 歸法寺 에 入寂 하야 兩重 大師 歸法寺 主 圓通 首座 이다. 俗姓 은 邊氏 나 父 는 嬪 性, 母 는 古命 이라云하야 朝鮮 華嚴 初祖 義湘 祖師 의 第七代 法孫 으로 靈通寺 順公 의 法嗣 이다. 光宗 大王 의 寵 愛 를 受 하야 羅末 初祖 華嚴宗 南北 派 의 水火 不相容 하야 關係 를 一轍 에 歸케 한 大教 役者 이며 同時 에 華嚴宗 의 一 大 明星 의 로서 朝野 에 名聲 이 높 하든 大學 匠 이 었다.

師 의 著述 은 三傳 記 第五 解 釋 諸 章 分 에 列 記 하 잇스나 此等 을 列 記 하 後 에 「並行 於代」 라 한 것 을 보 면 高麗 第十一代 文宗 二十九年 (西紀 一〇七五) 正月 外 지 는 全部 存在 하든 것 을 意味 하 낫다. 今 에 此 著述 의 種 類 를 列 舉 하 야 보 면

- (一) 釋教分記圓通鈔 十卷
- (二) 華嚴經三寶章圓通記 二卷
- (三) 釋華嚴旨歸章圓通鈔 二卷
- (四) 十句章圓通記 二卷
- (五) 一乘法界圖圓通記 三卷
- (六) 搜玄方軌記 十卷

- (七) 孔目章記 八卷
 - (八) 五十要問答記 四卷
 - (九) 探玄記釋 二十八卷
 - (一〇) 八法界品抄記 一卷
 - (一一) 普賢十種類玉歌 十一卷
- 等 이나 此中 에 第一 로부터 第五 外 지 는 現存 하 잇스며 (但 第五 는 上卷 一 卷 뿐) 第六 으로부터 第十 外 지 는 遺失 된 것 이다. (第十一 은 均如 傳 에 記載 되 어 잇슴)

다음 에 此等 著述 의 淵源 을 考察 하 야 보 면 均如 傳 을 著作 하 赫連 挺 의 記錄 에 依 하 면 (視雲 師 의 均如 實錄 舊彙 에 依據 한 것 임) 「皆 引 佛 經 普薩 論」 이라 한 것 과 같 치 어 經 論 이 든 지 引用 처 안 혼 것 이 업 시 一經 一論 에 傾 한 것 이 업스나 大略 前記 名目 에 表示 되 었 는 것 과 같 치 支那 에 서 는 智儼 及 法藏 兩 師 의 著述 과 朝鮮 에 잇 서 서 는 義湘 師 의 著述 을 祖述 하 면 서 自己 說 을 特唱 한 것 이며 그 보 다 도 더 自己 의 法師 도 大宗 匠 인 義順 公 의 豐富 한 著述 에 依據 하 야 當時 南 北 海 의 教理 上 相 違 點 을 論 破 하 얏 는 同 時 에 北 岳 海 에 傾 注 한 片 見 을 露 骨 化 시 킨 義順 師 의 說 을 排擊 한 것 이면 혼 을 안 다. 均如 師 의 說 과 當時 義順 師 의 說 이 어느 點 外 지 相 違 되 었 는 지 는 義順 師 의 著作 이 殘存 처 안 험 슴 으 로 未 詳 하 나 均如 傳 第四 主 義 定 宗 分 에 列 記 되 어 잇 는 義順 師 의 著述 을 列 舉 하 야 보 면

- (一) 三教所爲同體茶 (二) 有盡不盡
- (三) 權實華藏說 (四) 成土海明難
- (五) 歎不歎 (六) 三生攝體授職
- (七) 六相 (八) 就實本實
- (九) 斷障微少 (一〇) 兜率天子
- (一一) 五種成佛 (一二) 解行佛分相
- (一二) 流目廻心 (一四) 六地八會百六城

(一五) 淨土菩提樹

(一六) 性起五果四句

(一七) 廣修供養

(一八) 主伴章

等三十餘種에 依準하였스나 赫連挺의 記載에 依하면 「源流則別 躡駿頗多 文士煩者撮要而刪之 意之微者 詳究而現之」라 한 것 과 같다. 다음에 師의 著述 全般에 亘하는 共通性이 有한點과 그의 貴重한 價値를 가지고 있는 것을 綜合하여 보면 大略 아래와 같다. 十種으로 分할 수 있다.

(一) 全體及各部門마다 科目이 整然한 것.

(二) 前記 著述은 大概 講本임으로 講義 始初에 必히 該部門에 對한 概念을 惹起케 한 것.

(三) 모든 方面에 亘하여 引用文이 單혼 것. 此는 傳記 作者 赫氏가 「一代聖教 樹의 畫矣 洎 國家 大啓」라 稱讚한 것 과 같다. 引用이 甚히 單히 記載되었습을 論와서 師의 博學 巨匠임을 證할 수 있다.

(四) 敎理 中心의 立脚地에 依서 公平無私히 叙述한 것.

此는 本來 華嚴學의 自體가 他의 懸垂하달나 宗派의 觀念을 떠나서 敎理를 第一義의 으로 看做했스대 依했지 만 均如 師亦 然如 斯한 態度로써 어느一邊에 偏見을 持치 않았었다. 殊히 敎理 方面에 中心點을 置하여 取捨 撰擇을 했스며 佛陀의 敎理에 合致되기를 務히 하였다. 例컨대 師가 「冀符於 諸佛之心」(教二〇, 右)이라 말한 것 과 같다.

(五) 어느 共通의 意義를 持한 處에 是 共通로 解釋을 行한 것. 例컨대 歸自身이 「此上 諸義 委釋如 十句章 記」(教八, 左)라云한 것 과 같다.

(六) 現在 未안호 稀貴한 資料를 多數 遺傳한 것. 此는 設使 斷片의 이나 現在 他 文獻에 是 到底 可探求키 不能한 書籍名, 人名等及 此等 記事를 多數 記載한 것 이다.

(a) 書籍名 前記 義順公의 三十餘種 義記及 普法章, 簡義章, 一道章, 道中章等.

(b) 人名 融質, 融曲, 法維等.

(c) 他書에 求할 수 있는 朝鮮佛敎 資料가 多數 記錄되어 있는 것.

(1) 元曉 一道章의 說, 曉公 一道章云 下品成就者 是謂 法 中謂頂法 上謂忍法 是故 當知 煥法 於 惡趣等 未決定 離然 若本來 上品善根而 趣入者 始入 下品 順解脫分 爾時 便能 不往 惡趣 本來 中下 而 趣入者 雖已 趣入 而未 必然 如 瑜伽說 比(教七, 右)

(2) 元曉 道身章의 說 道身章 元曉 法師曰 小之 大 義能 容大 大之 小 義入 小中(同, 上, 右)

(3) 智通의 維洞記說 智通記云 若實 惡業 所受者 凡 夫位 自所造之業 受地 獄苦 由佛 光大故 令出得 大德 何有 過 敢退 大人 等乎 答若 爾何人 令不出 在 而 其中 有限在者 必有 深善 根人等 得出在也

(教, 四, 一八, 右)

(七) 均如 師의 緻密한 解釋及 卓見이 有한 것.

(a) 解釋 緻密한 例 法藏의 旨歸 章經 意第八 法性 圓融中 一諸法 無定性의 下에 左의 文이 有함. 以小 非定 小故 能容 大非定 大故 能入 小(正藏)을 解釋하야 謂十方 入 微塵時 十方 不壞大 能入 微塵中 微塵 不 壞小 能入 十方界 十方 大相 微塵 小相 各無 自性 是故 十方 大與 微塵 小不別 微塵 小與 十方 大不別

故能 容入也(中略) 謂十方 之 大 無定 自性 故與 微塵 無別 微塵 之 小 無定 自性 故與 十方 無別 則 十方 之 大 自 具小 相 微塵 之 小 本具 大 相 是故 十方 之 大 以 本具 之 小 相 入 於 微塵 故 非是 壞大 變小 方入 小也(中略) 十方 之 大 微塵 之 小 是一 不二 故 不壞 大小 方容入也(旨, 下, 左)

(b) 卓見을 持한 例 法藏이 五 教章 大段 第八 施設 異相의 處 異하야 「以一 處攝 一切 處故 是故 不動 菩提 樹 遍 昇 六天 等者 是 此 義也」라云한 如하 均如 師도 旨歸 章 說經 時 第二에 서 時間 觀念을 概說하야 卷則 一念

舒則 至 七日 乃至 三際(中略) 卷則 唯 七日 又 總則 唯 一念也(旨, 上, 二六, 右)와 如하.

(八) 著述의 校訂이 正確한 것.

高麗藏經은 世上에서 至寶라 하는 것은 勿論 板木의 眞價가 他에 比할 수 없는 것 도 事實이나 累次 嚴重히 校訂하여 一字도 錯誤가 無함으로 眞正한 高價를 保有함에 따라 安心하여 朗讀할 수 있는 줄 안다. 均如師의 著述은 該高麗藏의 補板에 插入된 것임으로 如斯한 眞價를 가지게 된 줄 안다.

(九) 著述 全般에 亶하여 當時 方言을 削除한 것. 이것은 言語學上으로 보아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本來는 方言이 附한 대로 傳했스나 天其及弟子等이 改纂할 때에 削除한 것에 甚因한 것 이다. 前若 天其等이 方言이 附한 原本대로 後世에 傳했다면 錦上添花의 格으로 오늘날 天其의 貢獻이 一層 더 큰 것을 推測할 수 있다. 著述 全般에 亶하여 方言이 削해졌스나 다만 그의 影子만 보인 것 이다 음 파 갖치 一箇所에 만 附하여 있다.

或有如 佛性 闕提人 隱有 亦 善根人 無如好 或有如 佛性 善根人 隱有 亦 闕提人 無如好 等云也 (教, 三, 左) 이의 갓치 原本 全部가 漢文의 助詞로써 吏讀文이 插入된 것임을 推測할 수 있다.

(一〇) 著述의 文獻의 價値. 此에 對한 例는 左와 如히 比較하여 보면 此均如師의 著述에 對한 眞價를 窺知할 수 있다.

續藏——因緣者, 隨隨俗義別 (二九八, 右, 上)

正藏——因緣者, 隨隨俗義別 (四九五卷, 七一五, 上)

均如著——因緣者, 隨隨俗義別 (教, 九,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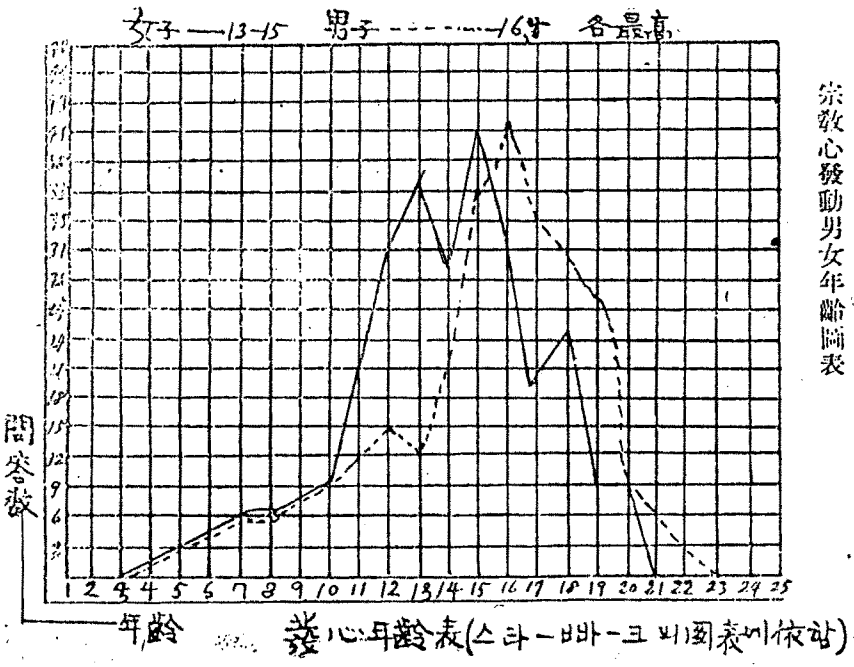
續藏經上欄外에 「正隨一作相」, 正藏下欄外에 「S隨二相」, 「S隨二相」이라 고 記入되어 있다.

右文句는 義湘師의 「乘法界闡章」에 있는 文句로써 如斯히 正續兩藏의 編輯者가 苦心千萬이라고 正路를 闡發한 것을 推測할 수 있다.

以上에 記述한 것은 著述自體에 對한 것 이나 다음은 二保存處를 略述코자 한다. 均如師의 著述은 現今 漢藏中

에든 大正新修大藏經이나 續藏及支那藏經等 二藏經中에도 插入된 것 이나 오죽 高麗藏經中에 國用補板中에 들어 있는 것 이다. 그림으로 高麗板을 印刷保管하는 外에는 어디 볼 수 있는 稀貴한 寶物이 다. 따라서 世上에서는 均如師의 華嚴學이나 該人格을 아는 이가 드문 것 이다. 近世 朝鮮 佛敎史를 著述한 이로서 均如師를 아는 이나 均如師의 傳을 수박 것 한 키 처럼만 보았을 것이다. 實로 朝鮮 華嚴學의 特色을 알고 朝鮮 佛敎의 거룩한 文化를 探知코자 하면 此均如師의 著述에 依차 안출수 있는 줄 안다. 이제 此 珍貴한 朝鮮 佛敎資 料의 所在地를 紹介하여 보면 左와 如함.

- (一) 金剛山正陽寺 全部
- (二) 雪嶽山 全部?
- (三) 五臺山 同
- (四) 通度寺 一部
- (五) 松廣寺 同
- (六) 海印寺 全部(板木外에)
- (七) 普賢寺 同
- (八) 成大圖書館 同
- (九) 東京增上寺 同
- (一〇) 滿洲國皇室 同



- (一一) 崔南善氏 全部(板木外)
- (一二) 高橋博士 同
- (一三) 大塚德城氏 ?
- (一四) 筆者 全部

但均如師著述中一乘法界圖記는 上中下三冊中에 現存한 것이니 上卷一冊뿐이니 元來板木은 五里霧中에 在하나 原本一冊은 海印寺圖書館에 崔英煥氏特志로 保管되어 있다. 寫本은 崔英煥氏, 石井教道筆者等이 各一冊式保存하여 있다. 或은 坂戶侃氏도 所有한 것이未詳하다. 斷片的으로는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諸宗部二(三)法界圖記叢錄錄中에五六個處에 記載되어 있다.

各 論

(一) 釋教分記圓通鈔

此十卷은 題名이 明示하는 것과 같이 教分記即五教章을 解釋한 것으로서 (嚴密히 말하면 教分記라면 五教章과 所詮章義理章을 포함) 法藏의 教分記를 祖述한 것이니 現存한 師의 著述中에는 最多量은 古領하고 있다. 此는 法藏의 華嚴教學을 徹底하자는 一方에 當時外자의 新羅로 부터 高麗時代外지에 至하기까지 諸師의 說을 引用하고 支那及印度의 諸師說外지溯及하여 一說도 漏落치 아니한點은 傳記後席中에 記載되어 있는 左記外如하다.

前佛已說 後佛未與 世眼漸昏 法輪中轍 師能傑出 助揚玄化 神道瑞應 隨緣通示於塵沙
 矣호로 教分記釋板木에 對하여 一考察을 試하고자 한다. 此教分記釋第十卷第十張의 板木이 二重으로 되어 있다. 其一은 그書體로 부터 말하면 다른 板木과 全然一致한 書體로 彫刻되어 있고 其一은 全然他板木과 書體로 別로 板木이니 此는 如何하리 如此重復을 生케 되었는가 하면 李朝太宗乙酉五年(西紀一四〇五)年에 首座沖

玄이 高麗藏經板木을 檢閱한 結果 前記一枚가 不足되어 있었다. 그림으로 此를 補充키 爲하여 此教分記釋第十卷第十張一張을 彫刻하여 補充시킨 것이다. 此를 彫刻하면서 그輪廓은 正에 다. 다음과 같이 陰刻하여 該補充시킨 理由를 說明하여 보았다. 此記事가 現今高麗板이 海印寺에 移安된 年代를 證明하고 있는 一大重要證據가 되어 있다.

丁丑出陸時此闕失與知識道元同願開板入工乙酉十月日首座沖玄
 如斯히 別體로 彫刻補充시킨後에 前記遺失된 板木一張이 何人의 손을 經했는지 發見되었으므로 如此二重의 板木이 存在하게 되었다. 그러면 丁丑年은 何丁丑年을 指示한 인냐 하면 李太祖五年(西紀一三九七)의 로써 江華島禪源寺에 安置했던 經板을 支天寺(寺는 一云社)에 移安하였다가 更次同六年으로 부터 八年間 海印寺에 移安한 것이다. 此記事와 恰似한 記事가 또한 朝鮮歷代實錄에 記載되었으니 다음과 같다.

李太祖七年戊寅五月丙辰幸龍山江大藏經輪 自江華禪源寺戊午兩令隊長隊副二千人輪經于支天寺
 此中에 李太祖七年戊寅은 六年의 錯誤인 것이 分明하다. 이 江華島로 부터 支天寺에 移安한 年代에 對하여는 여러가지 異說이 있으나 李太祖五年(丁丑)으로 부터 始作하여 그翌年五月即同六年五月外지 移安되었다. 今年이 戊寅年임으로 此를 逆算하면 距今五百四十一年前丁丑年에 支天寺에 支天寺로 부터 移安을 始作하였던 것을 丁丑히 算할 수 있었다.

(二) 華嚴經三寶章圓通記

此記亦是法藏의 華嚴經明法品內立三寶章을 釋한 것으로서 그內容을 一瞥하면

1. 三寶章釋文
2. 流轉章釋文
3. 法界緣起章釋文
4. 圓音章釋文
5. 法身章釋文

6. 十世章釋文
 7. 玄義章釋文
- 此記는 他書에 比하여 二大特色을 表示하였스니 其一은 各章마다 該章을 釋하기 前에 法藏의 等諸章의 所設한 理由及 該順序를 定을 明白히 說明하여 있고 其二은 左記十門을 揭載하여 第一門으로 부 第十門까지는 純全히 自己學說을 主張한 것이요 第十一門만은 法界緣起章을 解釋하여 있다.

1. 本法門順淺深決
2. 同體異體得名決
3. 法性門中同異決
4. 本法錢數多小決
5. 能應所應同體決
6. 所應是九是十決
7. 同體一一種種決
8. 同體事非理理決
9. 雜段問答現義決
10. 隨文科釋現示決

(三) 釋華嚴旨歸章圓通鈔

此鈔示是法藏의 華嚴旨歸章을 釋한 것으로서 그 誠語에 於 잇는 것과 과 大願을 發하여 板木을 刻하였다. 即 江花京十七年戊申歲 於 東京社 請諸德結 安居(中略)願承此因 和上及法界衆生同入華嚴普圓法界耳. 이다. 此記事를 推究하여 보면 多數의 손을 經하여 現在高麗藏經中에 入케 된 것을 知할 수 있다. 全體의 體裁 나 文字의 鄭重한 것이나 여러 點을 詳考하여 보면 他本에 比하여 持하 鄭重한 態度로 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세 此鈔의 起源以後 現今海印寺板中에 入藏되기 까지의 年代及 諸事項에 對하여 그 年代順으로 表解하면 다

順年代	種別	高麗	干支	支那	西紀	均如入	寺院別	關係者
(一)	施講	光宗十四年以後	辛亥	宋 乾德元年	九七五		歸法寺	均如
(二)	入藏	成宗六年三月三日 癸亥	丁亥	宋 雍熙四年	九七九		開泰寺	均如傳
(三)	古搜	高宗二十一年	甲午	南宋 淳平元年	一一三三		開泰寺	天其
(四)	編纂	江花京十七年 (高宗三十五年)	戊甲	南宋 淳平八年	一一三九		東京社	天其弟子
(五)	淨彫	高宗三十八年	辛亥	淳平十一年	一一四二		禪源社?	天其弟子
(六)	入藏	高宗三十八年 五月 九月	辛亥	淳平十一年	一一四二		禪源社	天其弟子

(四) 十句章圖通記

前記三種은 모다 法藏의 著述을 解釋한 것이나 此記一種만은 智儼의 華嚴經에 對한 觀點을 解釋한 것으로서 다음에 記한 法界圖記와 同지 義湘의 華嚴宗에 잇서서는 代의 法孫이 解釋한 傳統의 著述이다. 이세 均如師以前부터 均如師까지 此十句章을 解釋한 諸師 順次 表記하면 다음과 같다. (但均如師의 此等著作에 對한 肯定한 것 에 限함)

- (1) 法融釋 均如師의 直接資料를 삼은 것.
 - (2) 梵體釋 均如師가 肯定은 하나 未見其文이라 한 것.
 - (3) 融冊釋 均如師의 直接參考資料를 삼은 것.
 - (4) 均如釋 現存分.
- 다음에 十句章의 書籍存在에 對하여 均如師時代 또는 그 前外지라도 詳考하여 보면 均如師가 此記最初에 다 음과 같지 記載하였다.

上智大根 皆臨卷 自失溟澤」이란 말과 갖치 如々히 그어려운點을 말했거니와 特히第一句의釋文같은것은 第十法雲地의智가안이면 會得키難하다。 다음에此記成立年代에對하여는 다음과 같다。

年代	種別	高麗	年	月	日	均如入藏	寺院別	關係者	附記
一	施講	高宗十四年七月	癸亥			均如	均如及弟子松林所託		此項依高麗史及傳記
二	搜古記	高宗十三年	丙戌			均如	均如		
三	編纂	高宗十三年	丙戌			均如	均如		
四	寫刻	江華京十九年(高宗三十七年)	庚戌			均如	均如		
五	入藏	高宗三十八年以後	庚戌			均如	均如		此項依高麗史

五 此記識語의體樣을 보면 天其의弟子一人이板木彫刻하기爲한 草書執筆한것이안이라 적어도五人의體樣識語半張中에記入되어있다。 이記는 五人의 힘을 합하여 完成했다。 一大紀念으로 생각할 수 있다。 五人이分擔하여 쓴것이 事實일것이 千餘年後에 보는 筆者의 눈으로는 味滋는現狀이다 할 수 있다。

第一、開板年代에對해서는 高麗史高宗辛酉三十八年九月條에依하면 九月甲子幸賢聖寺 壬午幸城西門外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木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 更顯立都監 十六年而功畢 (麗史二四) 顯宗大王時代의板木은 燒盡되어입서지고 更次高宗大王의大願에依하여 丙

申二十三年(一、二三六)부터 爾後十六年間의大業을行하여 辛亥三十八年九月(江華京二十年)(一、二五二)에終한것이다。 此四種著述彫刻年代에對하여 大屋德城氏는 大略高宗三十八年前後일것이라고 推定하여 確然한判斷은안했으나 筆者는高宗三十八年을 最後로한高宗三十八年以前에寫나다고斷言한다。 그理由는 (一) 板刻文字의字型及板木의大小에對하여 確實하다고認定한다。 此四種의字型은 高麗板國刊原板보다는 約四分之一의字型을가지고있는데 反하여板木의全型은原板보다는크게만드러졌다。 如何든지高麗藏經板中에는 此均如師의四種著述의板木이最大한模型을가지고있다。 이것은 當時國家事業으로行한國刊原板은 國家安泰의祈願에依하였으므로 餘他補板보다는 極히緻密하게彫刻하였는同時에 字型도他에 比하여 第一큰것이다。 그의代身板木의全型은補板보다 작은것이다。 그러나 補板中에入藏케된 此四種은板木의全型及字型의 大小가原板과는正反對가되어있다。 此理由는 此四種의開板動機及目的이 原板과는 全然 다른것이다。 天其弟子等위 敎學普及並典籍保存에在함으로 寫수있는대로 字型은적게하고 板木의全型은크게만

(二) 國刊原板의廻向期에當하여 均如師의著述이發見되었으므로(一時에搜得한바는안이나) 原板彫刻이 終了하기전에 開板하기盡力한것이다。 寺에서 그의整理와彫刻하기爲한 淸書等에奔忙하였을것이다。 例를들면 敎分記第一卷識語中에如左하記錄되어있다。 此是本講和尙(天其)所得敎分記中 均如聖師所傳古義諸本標記也 皆落簡殘編 未得其本 又由記者有巧拙取捨有不同故 使諸本 有多差別也 今錄于此 欲使後來備知源起耳 外것호며 淸한敎分記鈔第二卷十紙左便에는 二行寫板木을削除한데두었으며 同九卷二十八紙右便에는 一行을削除하고 他木을刻入한것이있는 等事는모다原板과同時終了키에 匆忙했섯음을 如實하 證左하는 證이다。

第二、此等四種板木은他板木과가치 現在國刊藏經의補板이라고 確定된年代에對하여 推究하여보면高麗藏經目錄最終의序限에記載되어있는記事가 此의唯一無二하證據일것이다。

歲在乙丑 余在此 參印經事矣 閱板校訂 宗鏡錄等十五部二百三十一卷 錄中不參 而亦板章頭 不書某字印者 印難校者校力故 印事畢後 與退菴公錄議 命胡剛氏 舊錄漏者已補 某部板頭 惟書某册幾張而 不書某字可缺也然 前人之事 目於此者 不諫於我爾

五月下浣海冥壯赫誌 比丘希一書와 갖치 宗鏡錄等二百三十一卷中에 入하야 李太利乙丑二年(一八六五) 現在五臺山及雪嶽山에 安置한 二部印經事을 行할時에 壯雄의 貢獻에 依하야 現在海印寺東四兩閣에 保管하고 있는 寺刊藏經板木과 區別하야 國刊藏經補板이라 고定한것이더라 千字文의 順序로 말하면 冥治兩兩中에 入藏되여 있다.

(五) 一乘法界圖通記

此記는 題目이 表하고 있는 것과 갖치 義湘祖師의 七言三十句二百十字로써 華嚴教理를 如實히 綜合한 法界圖及一乘法界圖章을 祖述한 것으로 此의 板木은 世上에서 볼수 없스나 三卷中上卷一冊만은 海印寺圖書館에 保管되여 있다.

다음에 此記의 特徵及目的은 義湘華嚴宗의 傳法形式의 一인 法界圖一張式을 傳々相承케 하며 此에 對한釋圖製作케 하는 것이 一個傳統의 精神이 되여 있었다. 均如師亦是如此한 精神下에서 釋을 지은 것이며 法界圖記叢錄錄도亦是 그러하다.

(六) 普賢十種願王歌

此는 世上에서 詞勝歌라고云하는 十一章의 歌詞로써 全部가 吏讀文으로 되어 있는바 小倉進平氏의 吏讀文及鄉歌의 研究와 自楊桓氏가 幾年前에 佛敎誌에 記載한 것이 곧 그것이다. 其의 內容은 言語學의 問題임으로 此는 省略하고 其他 此歌에 對한 것을 論하면 第一章禮敬諸佛歌로 부터 第十章普賢迴向歌까지 別別歌라 하면 第十一章總結無盡歌는 總歌이다. 前十章은 普賢十種行願의 名稱을 使用한 것이며 第十一章만은 自作한 名稱이다. 此歌製作의 根本動機는 序文에 「今托易知之近事還會難思之遠示」 이란 말과 갖치 自淺至深의 方便으로 衆生濟度에는 于不은 지 알수 있는 當時方言으로서 製作한 詩인 것임이 확실한 것이다. (三六頁로 續)

Sokrates의

人間「소크라테스」

牛 步 行 人

爲先 나의 辯明을 나自身이 記述하게 되니 事實을 告白하기에는 妙論 좋은 機會이라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辯明」을 나自身이 後의 노릇임으로 나의 것은 非理想的인 事라 理論的 또 더구나 藝術的인 事이다. 그러나 何如間 나의 所謂 「卒業論文」으로 임이 東洋大學敎務課에 屆出하게 된 題目도 目次를 原案 그대로 用어 暫時 自己紹介하자면

「ソクラテスに於ける 自覺と自由」

- (一) 緒 言
- 第二章 人間ソクラテス
- 第三章 自我の場合
- 第四章 無知の知
- 第五章 Arete
- 第六章 ソクラテス的なるもの